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정상회담 추진

3월 2일 예정 관세인상 미뤄 트럼프 "무역협상 합의 근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90일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뤄냈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많은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나는 현재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지난해 12월 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0일 무역협상 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 2일부터 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기간을 얼마만큼 연장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양측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시진핑 주석과 마라라고에서의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라고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리조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 여러 국가 정상들을 초청한 바 있으며 취임 후 시진핑과의 첫 정상회담도 2017년 4월 이곳에서 열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월 말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지난 22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백악관에서 열

린 전미주지사협회(NGA) 연회에서 "중국과 모든 일이 잘 되면 앞으로 1~2주에 걸쳐 아주 큰 소식(very big news)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미·중이 무역 합의에) 진짜로 아주 근접해 있다"고 강조했다.

미·중은 지난 19일부터 워싱턴DC에서 차관급 협상을 한 데 이어 21일부터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의 경제 책임자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단을 이끌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까지 잠정적인 무역 협정을 위한 관세와 집행 장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0〉 이종민

이종민(李宗珪, ?~846)의 자는 손지로 농서 성기 출신이다. 문종때 두차례 재상을 역임했으며 우승유와 친해 이덕유와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했다. 805년 진사 시험에 급제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808년 현종이 실시한 책시(策試)에서 우승유, 황보식과 함께 류이덕이 부득이 내쳐야했다. 이종민은 침묵했고 환관 세력은 조정과 황실을 장악했다. 833년 서천절도사 이덕유를 재상으로 발탁했다. 이덕유는 당쟁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종민 일파에 칼을 들이쳤다. 급사중 양우경과 소환, 중서사인도 황제에게 역울함을 호소했다. 현종은 왕에, 위관지, 양우룡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길보의 아들 이덕유와 이종민, 우승유의 우이(牛李) 당쟁이 시작되었다. 이길보

절도사로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는 환관을 적극 옹호하고 번진과의 전쟁을 피하지는 유희주의자로 변신했다. 이덕유 일파는 철저히 배제했다. 원진을 무장절도사로 내려 보내고 정담을 공부시랑으로 옮겼다. 배도 역시 산남도절도사로 내려가야 했다.

환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문종은 승시(策試)에서 우승유, 황보식과 함께 류이덕이 부득이 내쳐야했다. 이종민은 침묵했고 환관 세력은 조정과 황실을 장악했다. 833년 서천절도사 이덕유를 재상으로 발탁했다. 이덕유는 당쟁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종민 일파에 칼을 들이쳤다. 급사중 양우경과 소환, 중서사인도 황제에게 역울함을 호소했다. 현종은 왕에, 위관지, 양우룡을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길보의 아들 이덕유와 이종민, 우승유의 우이(牛李) 당쟁이 시작되었다. 이길보

환관 세력과 손 잡고 재상 두번 지내

가 814년 죽은 후에야 이종민이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감찰어사를 거쳐 예부원외랑으로 승진했다. 817년 4년을 끌어온 회서 전투가 지지부진하자 배도는 창의절도사가 되어 직접 전선에 가서 전투를 지휘하겠다고 주청했다. 명장 이소의 분투에 힘입어 치정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종민이 부분으로 참여했다.

820년 목종이 즉위했고 그는 중서사인으로서 승진했다. 821년 우이 당쟁을 격화시킨 사건에 연루 되었다. 과거시험에서 서천절도사 단문창, 한림학사 이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낙방했다. 반면에 조정대신의 자제들이 대거 합격했다. 시험의 공정성에 시비가 분분하자 재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덕유는 단문창과 이신 편을 우승유, 이종민은 반대편을 지지했다. 그는 검주절도사로 좌천되었다. 이덕유에 대한 분노가 더욱 깊어졌다. 825년 병부시랑으로 영진했다. 문종이 새 황제로 즉위하자 선임 재상 배도는 이덕유를 차석 재상으로 기용할 것을 건의했다. 그런데 추밀원에서 이종민을 재상으로 추천했다. 이종민은 한림학사 송악현, 환관 양승화, 현종의 부마 심씨의 도움으로 이덕유를 제치고 재상 반열에 올랐다. 남미 10여 개국으로 구성된 외교 모임 리마 그룹은 오는 25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으로 재차 재상으로 복귀했다.

835년 문종은 환관세력을 일거에 몰아내기 위한 거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감로지변(甘露之變)이다. 수많은 중신이 처형되고 권력을 환관이 완전히 장악했다. 환관이 있는 북사(北司)가 권력의 심장부가 되었다. 구사랑은 문종을 협박하여 황제는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그는 명주자사로 좌천되었다.

840년 무종이 환관 어흥지, 구사랑의 도움으로 즉위했다. 이덕유가 재상으로 임명되어 국정을 책임졌다. 허북의 소의진을 제압하는 것이 초미의 현안이었다. 그 와중에 이종민과 우승유가 소의절도사 유충간에 계보된 친필 서한이 발견되었다. 무종은 이종민을 장주자사로, 순주자사로 계속 내렸다. 846년 무종이 급서하고 황숙인 광왕이 선종으로 즉위하자 이종민을 장안 가까이 불러들였으나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과격해 이덕유와 크게 대립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돌승최, 왕수징 등 환관과 손잡는 것도 거센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이덕유, 우승유, 이종민 3인의 갈등으로 당 후기 수십년간 정치가 혼란스러워졌다. 그 와중에 환관 세력이 사실상 권력을 독점했다. 당왕조는 환관의 나라가 되었다.



베네수엘라와 국경이 접한 콜롬비아 국경도시 쿠쿠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에이드 라이브' 콘서트에서 콜롬비아 가수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자선 콘서트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인도주의 원조 물품 반입을 촉구하고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의 억만장자이자 버진그룹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기획했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해외원조 놓고 또 유혈사태...300여명 사상

美 등 국제사회 비난 고조 남미 10개국 긴급 회의

베네수엘라에서 구호 물품 반입을 두고 유혈사태까지 발생하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콜롬비아 접경지역에서는 원조 물자를 받으려는 베네수엘라 주민과 이를 막으려는 군이 충돌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가 얼마 남

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군이 이러한 비극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로 되돌아올 것으로 희망한다. 만일 그것이 일어난다면,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 충격을 받았고 슬픔에 빠졌다"며 "어떠한 상황에서 폭력과 치명적인 힘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연합(EU)도 마두로 정권의 폭력 사용을 비난했다.

남미 국가들 역시 구호 물품을 원하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마두로 정권이 무력으로 진압한 데 대해 규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마두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도움을 받으려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라질은 국제사회, 특히 아직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아직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에 베네수엘라의 자유화 노력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남미 10여 개국으로 구성된 외교 모임 리마 그룹은 오는 25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인도 '살인 밀주' 사건 사망자 156명으로 늘어 중태 환자 200명 치료 중

인도 동북부에서 발생한 밀주(密酒) 유통 사건의 사망자 수가 156명으로 급증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AFP통신은 인도 동북부 아삼주(州)의 고라카트 등 두 지역에서 밀주를 마신 후 사망한 주민의 수가 24일에만 50여명 추가됐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21일 10여명의 사망자가 처음 나온 뒤 매일 수십명씩 사망자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현지 병원에서는 아직 2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 환자는 중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엔 문제가 된 밀주를 마신 주민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21일보다 훨씬 이전에 밀주를 마신 주민까지 병원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당국은 현지 병원에 의료진과 약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밀주 제조업자 등 16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밀주에 유독성 메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정식 허가된 술을 살 여력이 없는 빈곤층이 이 같은 밀주를 마시다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달 초에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와 우타라칸드주 등에서 밀주를 마시다 주민 11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1년 서벵골주에서는 무려 172명이 밀주를 마시고 사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은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